

‘국내 최대 로드레이스’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성료

자전거로 무주 곳곳을 달리다

전국서 1500명 참가
무주읍·부남·안성
설천·무풍 등서 질주

2023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

전북자전거연맹과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8시 출발 시총과 함께 무주읍 예체문화관 주차장을 출발한 그란폰도(125.7km) 참가 선수들은 부남면과 안성면, 설천면 하조사거리에서 라제 통문을 거쳐 무풍면과 구천동 삼공삼거리, 적상면 초리마을을 돌아 국민체육센터에 도착했으며, 메디오폰도(70.7km) 참가 선수들은 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설천면 하조 사거리까지 달려 적상면 양수발전소 홍보관과 초리마을, 산성교를 거쳐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날 그란폰도에 참가했던 선수 김모 씨는 “무주 대회는 코스도 좋지만 페달을 밟으면서 만나는 대자연이 정말 일품”이라며 “경기 위상도 높아서 자전거가인들 사이에서는 꼭 한 번 참가해보아야 하는 대회 계속해서 참가하게 되는 대회로 입소문이 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



지난 10일 무주군 일원에서 열린 2023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으며 무주 그란폰도는 한국 최대의 로드레이스를 펼치는 대회로 명성이 높다.

한편, 이날 시총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의

회 의원, 유봉현 무주경찰서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등 내빈들과 윤백호 대한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전북자전거연맹 회장, 그리고 유소년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무주군과 인연(리그 북 in 무주)을 맺은 차범근 축구감독 등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서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사전에 선수 이용시설과 노면 등을 점검·정리했으며 대회 당일에는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안전관리와 진행·유도 요원으로 활동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문화 축구 유망주 여자월드컵 출전하나

콜린 벨 감독, 최종 소집훈련 명단 발표
16세 이하 대표 '케이시 유진 페어' 포함

대한축구협회가 다음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발표한 여자 축구대표팀 최종 소집 훈련 명단에 다문화 축구 유망주가 포함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최종 소집 훈련 명단을 통해 처음으로 발탁된 선수는 5명이다.

16세 이하(U-16) 대표로 활약 중인 2007년생 케이시 유진 페어(Cathy Yujin Fair, 플레이어스 다벨 로프 아카데미 소속, 미국), 원주는(울산현대고), 권다은(울산현대고)이 고교생 신분으로 소집됐다.

이 밖에 골키퍼 최예슬(창녕 WFC)과 180cm 장신 공격수 고유나(화성KSP)도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가장 주목 받는 선수는 케이시 유진 페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시 페어는 한국 여자 A대표팀 역사상 첫 다문화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케이시 유진 페어는 뛰어난 체격 조건과 함께 돌파력과 득점력을 갖추고 있다.

권다은은 15세 309일에 대표팀에 발탁돼 지소연(15세 219일)에 이어 남녀 통틀어 역대 최연소 A대표팀 발탁 순위 2위에 올랐다.

케이시 유진 페어와 원주는 권다은은 지난 4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U-17 아시안컵 예선 3경기에서 13골(케이시 페어 5골, 권다은 4골, 원주는 4골)을



케이시 유진 페어

합작한 바 있다.

콜린 벨 감독은 “능력만 보여준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월드컵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과 경기에 100%로 임해야 한다. 모든 선수들은 23명 최종명단에 들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소속 구단별로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차례로 파주 축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다음달 8일 아이티를 상대로 월드컵 출전 경기를 치른 뒤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하고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호주로 떠난다. /뉴시스

개도국 태권도 선수·지도자, 태권도원에

태권도진흥재단·세계태권도연맹, 7개국 40명 대면 초청 연수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태권도 초청 연수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태권도진흥재단과 WT는 올해 총 세 차례의 초청 연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가운데 지난 9일부터의 1차 연수에는 인도, 세네갈 등 7개국 40여명의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겨루기와 품새 수련 운동처방 등의 실기 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한국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K-문화를 알리는 기회도 마련됐다.

개도국 초청연수는 코로나19 인

2020년 이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온 것을 올해부터 전면 대면 연수로 실시하며 공적개발원(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원국의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 유소년 수련생, 장애인 대회 국제심판 등의 역량 강화 및 태권도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등 태권도를 통해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확대와 문화 외교를 지원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복 및 용품 지원, 태권도 봉사단 파견 등 개도국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태권도 초청 연수'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및 태권도 저개발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태권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FIFA 여자월드컵 상금 규모 공개

엔트리 전원 최소 3900만원씩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의 상금 규모가 공개됐다.

FIFA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여자월드컵에 나서는 모든 팀, 선수를 위한 새로운 상금 배분 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배분 방식에 따르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도 23인 엔트리 전원이 3만 달러(약 3900만원)씩 받는다.

16강에 오르면 1인당 상금은 6만 달러(약 7780만원), 8강은 9만 달러(약 1억1680만원)로 올라간다. 우승팀 선수들은 1인당 27만 달러(약 3억5000만원)를 받고 준우승의 경우 19만5000달러(약 2억2700만원)를 받게 된다.

또 라운드별 진출 상황에 따라 각국 협회와 선수가 가져가는 비율도 별도로 정했다. 각국 축구협회가 FIFA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뉴시스

보리와 맥아의 주산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



2023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2023. 6.16 FRI ~ 6.18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Parking Lot

